

## [찬양과 큐티 5]

### “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”

유지연 집사 / 1999 / 페이지 수: 1

어메이징 그레이스(Amazing Grace), 놀라운 은혜!

이 세상에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 필립 양시는 그의 저서에서 은혜를 ‘오염되지 않은 마지막 최상의 단어’라고 표현하고 있다. 그리고 이어서 은혜보다 우리의 믿음의 닷을 내릴 더 좋은 장소는 없다고 말한다.

나에게 있어서는 은혜는 은혜라는 단어만 보아도 은혜이다.

어메이징 그레이스, 이 곡은 1779년. 지금으로부터 2백20년 전 미국의 존 뉴턴이라는 목사에 의해서 씌여 졌는데 전래 동요에 가사를 붙인 것이다. 이 곡은 또한 작곡된 후 2백20년 동안 줄곧 크리스천 뮤직의 탑10 차트를 유지하고 있는 이 세상 단 한 곡의 노래이기도 하다.

존 뉴턴 목사는 어느 날 꿈을 꾸었다. 그는 꿈속에서 천국에 갔었는데 세 번 놀랐다고 한다.

첫 번째 놀란 것은 “아마 이러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곳에 와 있을 거야!”하며 스스로 예상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.

다음 두 번째 놀란 것은 “그러그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오지 못 했을 거야!”하며 부정적인 예상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천국에서 보았던 것이다.

세 번째 그는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? 그것은 자기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란 것입니다. 꿈에서 깨어난 존 뉴턴 목사는 꿈속에 놀랐던 사실들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쓴다.

“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...”

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.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은혜를 은혜로 받고 있는가?

존 뉴턴 목사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진리를 깨닫고 3절에서 은혜가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한다고 썼다.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,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며, 믿음으로 가는 나라, 은혜로 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되기를 기도한다.

<유지연 집사 / 헛셔뮤직 대표>

\* 출처 : QT신문